

조선대, 광주·전남 첫 등록금 11.5% 감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 대학 "학습지원·고통분담 차원" 총학생회와 수차례 협의끝 협약 지역사립대 30여곳 영향 미칠 듯

조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대학 최초로 전교생에 2학기 등록금 11.5%(25만원 이내)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다양한 코로나19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 1인당 등록금 감면률은 12%에 달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6일 오후 대학 소회의실에서 대학 총학생회와 협약을 맺고 올 2학기에 등록금의 12%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올 1학기 수업이 대부분 출석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총학생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조선대는 지난 6월과 7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정승장학금'과 '코로나19 극복 제2차사망 장학금'으로 각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에서 11.5%(자기부담금의 11.5%, 상한액 25만원)를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급

한 장학금과 이번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합하면 전체 등록금의 총 12%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는 최대 비율이며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조선대는 구성원 기부 캠페인, 부서별 사업예산 절감과 코로나19에 따른 성적장학금을 일부 조정해 약 5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대상자는 2020학년도 1학기과 2학기 연속 등록생에 한하며, 8월 졸업자와 휴학생은 장학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의 수혜 학생은 총 1만 9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조선대와 총학생회는 장학금 지급 외에도 향후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했다. 조선대는 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 온라인 학습의 환경을 한층 더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김준연 조선대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규모의 재난 특별장학금을 결정한 대학에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과 대화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6일 조선대학교와 총학생회가 대학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등록금 감면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교육청 '농산물 꾸러미' 공급기한 14일까지 2주 연장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전남도청과 협업해 추진중인 '친환경농산물 가족 꾸러미' 지원 2차사업의 공급기한을 오는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차사업 종료 시점인 지난 7월 31일 기준 포인트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용률이 93%로 7%의 포인트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포인트는 가정 내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휴대폰 번호변경 등으로 사용 시기를 놓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제2차 꾸러미 포인트 사용기한을 14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 후에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4만원 상당의 현물 꾸러미를 각 가정에 배달해줄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마산·대구·제주 교사들, 5·18, 4·3 등 온라인 수업 공유

실천교사모임, 2학기부터 "민주화운동 인식 넓혀"

광주, 대구, 마산, 제주지역 교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온라인 교류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6일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모임)에 따르면 해당 지역 교사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대구 2·28 민주화운동, 마산 3·15 의거, 제주 4·3항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대해 수업을 하고 수업자료를 인터넷에서 공유한다.

이를 위해 실천교사모임은 초·중·고·광주 10개, 대구 3개, 마산 4개, 제주 3개 학급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열 쌍의 자매결연 학급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자매결연 학급 교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가량 수업하고, 수업 내용(동영상·문건 등)을 실천교사모임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 이후 교사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수업 내용을 가지고 '상대지역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한다.

실천교사모임은 대구, 마산, 제주지역에 조직된 같은 모임 교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자매결연 학급이 선정되면 2학기부터 온라인 교류 수업을 연다.

실천교사모임은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지역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실천교사모임은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지역 교사들과도 민주화운동 등 온라인 교류 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실천교사모임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역사 추리 체험프로그램 '팔일오.com'을 개발했다. 서울에

서 현장을 답사하고 문제를 출제했으며, 대구에서 그림, 부산에서 음악 등 도움을 줬다.

프로그램은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각각 윤봉길 의사가 흥거우공원 거사 전 김구와 만났던 상해 시계방, 안중근 의사가 1차 거사에 실패했던 차이저거우 기차역, 안중근 의사가 가도가 있는 서울 빈 마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팔일오.com의 총괄제작을 맡았던 이해중(광주 실천교육교사모임 부회장) 광주연합초 교사는 "대구, 마산, 제주지역 교사들을 광주로 초청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형태의 교류 수업을 하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교차 수업을 하기로 했다"며 "해당 지역 교사와 학생들이 상대 지역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백범기념관 '독립운동가 덕분에' 체험행사

13일~15일 75주년 광복절 기념

광주백범기념관이 75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6일 광주백범기념관에 따르면 광주백범기념관은 사단법인 백범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독립운동가 덕분에'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백범기념관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복절보다 앞서 3일간 진행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백범기념관에서 오전 11시, 오후 1시 두 차례 열린다. 참가신청은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체험행사는 ▲'역사잡GO, 임무를 완수하라' 미션활동 ▲공예재료를 이용해 나만의 스타프론 거치대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안종일 광주백범기념관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광복절 체험행사가 축소돼 아쉽다"면서 "역경 속에서도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대,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선정

목포대학교 유·무기소재 및 천연물 분광화학 분석센터가 최근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연구 장비 구축 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대학 내 산재되어 있는 연구 장비를 학과·연구분야 단위로 집적화해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전문적 관리를 수행하는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장비 이전·수리·성능향상, 전문인력 활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과제로는 크게 Core-Facility 조성 지원, 연구장비 구축 지원,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의 총 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원 사업'에 전남지역 최초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집적화·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산학협력단 '뉴노멀 MICE 아카데미' 운영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총 13회에 걸쳐 '뉴노멀 MICE(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전남관광재단의 위탁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온오프라인 전시컨벤션 기획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신대를 포함한 광주·전남 6개 대학의 교수와 서울·수도권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MICE 산업의 이해, 각종 행사 유치 및 운영 실무, 온라인 전시컨벤션 동향 등을 교육한다.

교육을 마친 뒤 9월 중에는 교육생들이 소규모 컨벤션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참가자는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www.ijnto.or.kr)와 사무국(061-330-3665)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 '돌봄 어른신 찾아가는 치매검진' 실시

광주시 동구가 지역내 어르신들을 찾아가 치매검진을 실시한다.

6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관내 돌봄이웃 중 만60세 이상 어르신 900여명을 대상으로 우울·치매 등 정신건강검진과 함께 기본 상비약을 배부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1:1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은 감염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감염수

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된다.

검진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되며, 치매선별검사(MMSE-DS)·노인 우울검사(SGDS) 등과 함께 7종으로 구성된 기본상비약을 배부한다.

검진결과에 따라서는 ▲CERAD-K검사(신경심리검사) ▲MRI 및 혈액검사 등 치매정밀검진을 무료로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